

장문 1입니다.
장문 1은
보통은 빈칸이 좀 어렵고
제목이나 주제는 평이한데..

잉?
두문제 모두 오답률이?
상위 2, 3입니다.

41번 - 63%
42번 - 70%
ㄷㄷㄷ;;

왜?

한번 보죠.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icrosoft senior research fellow Malcolm Slaney and Cambridge University professor Jason Rentfrow advocated dispensing with physical copies of documents and mail, and all the filing, sorting, and locating that they entail. Computer-based digital archives are more efficient in terms of storage space, and generally quicker in terms of retrieval.

But many of us still find something soothing and satisfying about handling physical objects. Memory is multidimensional, and our memories for objects are based on multiple attributes. Think back to your experience with file folders, the physical kind. You might have had an old beat-up one that didn't look like the others and that—quite apart from what was inside it or written on it—evoked your memories of what was in it. Physical objects tend to look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a way that computer files don't. All bits are created equal. The same 0s and 1s on your computer that render junk mail also render the magnificent beauty of Mahler's fifth symphony or Monet's Water Lilies. In the medium itself, there is nothing that _____. So much so that if you looked at the digital representation of any of these, you would not even know that those zeros and ones were representing images rather than text or music. Information has thus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Why We Still Keep Physical Files
- ② Digital Culture: Understanding New Media
- ③ Create Unlimited Space for Your Memories
- ④ Digital Tools Are a Communication Wizard!
- ⑤ Challenges of Early Adopters in the Digital Age

4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represents the digital signals
- ② carries a clue to the message
- ③ offers user-friendly environments
- ④ makes information accessible to all
- ⑤ suppresses your memory from the past

저는 장문 1에서 빈칸문제를 먼저 풀니다.

■ RT - 전치사 in에 착안해서 항을 잡으면

In the medium itself, there is nothing that _____ .

→ [매체 자체 → ()이 없다]

입니다.

■ CP -

① Microsoft senior research fellow Malcolm Slaney and Cambridge University professor Jason Rentfrow(여기까지가 사람입니다. ㅎㅎ) advocated(옹호하네요?) dispensing with(버리랍니다. 뭐를?) physical copies(물리적인 복사본?) of documents(아하 종이 서류?) and mail, and all the filing, sorting, and locating that they entail.

② Computer-based digital archives(아하! 컴퓨터죠! 종이서류 vs 컴퓨터 파일, 본질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are more efficient(컴퓨터가 더 우월하다고 하죠?) in terms of storage space, and generally quicker in terms of retrieval.

이쯤에서 대립항을 잡아볼까요?

B: 종이서류 → 별로 안 좋음
 A: 컴퓨터 → 우월함!

③ But(하지만! 그렇다면 앞에서 잡은 대립항이 뒤집어 질 수도 있어요. 즉, 종이서류가 좋고, 컴퓨터는 안 좋다는 논리로 흐르겠죠.) many of us still find something soothing and satisfying about handling physical objects.(종이서류에 뭔가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다 하네요?)

④ Memory is multidimensional(기억은 다차원이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and(and는 순접이니까 부가적이거나 같은 얘기를 하겠죠?) our memories for objects are based on multiple attributes.(based on을 기준으로 방향을 역으로 잡아보면? 아하! [다양한 특징들 → 우리의 기억]의 구도를 만드네요.)

⑤ Think back to your experience with file folders, the physical kind.(기억을 더듬어 보라네요? 예시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예시는 순접이죠? 같은 말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읽어주세요.)

⑥ You might have had an old beat-up one that didn't look like the others(다른 것들과 다르다? 특징이죠? 아까 잡은 구도 [다양한 특징들 → 우리의 기억]의 X인 다양한 특징들입니다.) and that — quite apart from(여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what was inside it or written on it — evoked(불러일으킨다죠?) your memories(기억들!) of what was in it.
→ 어려워 보이지만, 잘 보면 [다양한 특징들 → 우리의 기억]의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⑦ Physical objects tend to look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a way that computer files don't.
→ 여기서 확정을 하네요.
- 처음에 잡은 대립항인

B: 종이서류 → 별루 안 좋음
A: 컴퓨터 → 우월함!

이

- But 뒤부터 바뀌면서

B(종이서류): [다양한 특징들 → 우리의 기억]

이었으니

대립항인 컴퓨터파일은

A(컴퓨터파일): [특징 X → 우리의 기억X]

이겠죠? 이해 되시죠? 대립항은 모두 반대관계라는 것

⑧ All bits are created equal.

→ 그쵸. 모든 비트는 같다! 앞 맥락과 같은 얘기를 하네요>(*여기의 bits는 그냥 과자부스러기가 아니라 컴퓨터의 bit입니다.)

⑨ The same(동일한 = 특징 없는, 맞죠? 컴퓨터를 기준으로 한 X입니다.) 0s and 1s on your computer that render junk mail also render the magnificent beauty of Mahler's fifth symphony or Monet's Water Lilies.(뭐죠? 양보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는 컴퓨터 파일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할 맥락이 아니죠. 이 말에 혼동되지 말고 양보로 보고 맥락에 맞는 진짜 생각을 기다리며 읽어 가야 해요.)

⑩ In the medium itself, there is nothing that _____.

→ 그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 아까 잡은 관계항을 다시 볼까요? [매체 자체 → ()이 없다] 뭔가 떠오르나요? 감이 안 옵니다. 다음문장을 보죠.

⑪ So much so that if you looked at the digital representation of any of these, you would not even know that those zeros and ones were representing images rather than text or music.

→ 이것도 if를 기준으로 구조를 잡아볼까요? if안엔 X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디지털상징? 아 구별이 안 되죠? → 알지 못한다.]네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that절 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관계항과 대립항을 통해 무엇이 들어있을지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시각이라면 you would not even know만으로 충분히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so much so that 매우 그러하므로 ...하다'이지만 이걸 모른다고 풀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냥 순접이구나 생각하고 that절 안의 if부터 구조를 잡아보세요.

⑫ Information has thus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

→ ????????? 정보는 그러므로 의미로부터 분리되었다? 뭐죠? 일단 보류! (그래도 앞 문장을 여기에 조명하여 생각해 본다면 [정보 = 디지털 상징 → 알지 못한다 = 의미로부터 분리]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전에서는 무리입니다.)

* 자~~ 지금까지 나온 정답의 근거들을 정리합시다. 근데, 좀 어렵네요.;;
여태 나온 근거라는 게 A(컴퓨터파일): [특징 X → 우리의 기억X] 정도예요.

- 그리고 우리가 잡은 관계항은
[매체 자체 → ()이 없다]

* '매체 = 컴퓨터파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빈칸엔 뭐가 들어가죠?

■ BE

→ 특징이 없다, 그래서 구별을 못한다. 정도... 더 나가면 [정보 = 디지털 상징 → 알지 못한다 = 의미로부터 분리]정도?

[선지선택] 부정표현(nothing)이 앞에 있으므로 그걸 넣어서 분석해야 합니다. 깜빡하다가는 반대선지를 고를 수 있어요.

① represents the digital signals (X)

→ 느낌상 이런 단순한 것은 아니겠죠. 게다가 빈칸요소와 관련성이 없고, 지나치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② carries a clue to the message

→ 메시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뭐죠? 일단 보류

③ offers user-friendly environments (X)

→ ①과 마찬가지로. 너무 뜬금없습니다. 빈칸요소와 관련성도 없구요.

④ makes information accessible to all (X)

→ 정보를 접근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본문에 있었나요? 아니죠?

⑤ suppresses your memory from the past

→ 과거로부터의 너의 기억을 억제하지 못한다.

②번을 다시 볼까요?

② carries a clue to the message

→ 메시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의 X는 bits니까 컴퓨터파일 정도죠?

그럼 Y자리인 빈칸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모아보죠.

* RT: [매체 자체 → ()이 없다]

* CP의 결과: [정보 = 디지털 상징 → 알지 못한다 = 의미로부터 분리]

* 보이나요?

→ 매체자체엔 특징이 없고 → 기억을 못하고 →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매체 자체 → (특징, 기억, 의미)가 없다]

→ 'a clue to the message'는? 메시지(= 의미)에 대한 단서'(특징)! 일치합니다.

- 이어지는 문장인 you would not even know that those zeros and ones were representing images rather than text or music.을 보니,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네요.

매력적인 선지가 없어서 ②번을 고르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답률을 보니?

ㄷ.....

①번을 고른 분이 30.7%입니다.

②번이 이해가 안되고 나머지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①번으로 간 것 같아요.

X → Y의 구도를 잡아서
대립항으로 이어가다가
But 부분에서 반대로만 잡았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능에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번 7모는
34와 42번이 가장 매력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41번을 볼까요?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Why We Still Keep Physical Files
- ② Digital Culture: Understanding New Media
- ③ Create Unlimited Space for Your Memories
- ④ Digital Tools Are a Communication Wizard!
- ⑤ Challenges of Early Adopters in the Digital Age

장문은 빈칸과 제목문제입니다. 빈칸도 중심문장이므로 빈칸을 맞추면 제목도 맞추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굳이 두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요.

제목이 전체를 물어보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은 전체가 아닌 부분에 뚫어야 차별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문제도 마찬가지로요.

빈칸은 컴퓨터쪽에 만들었지만

글의 전체 주제와 제목은 그와 다르죠.

디지털보다 종이책이 좋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이자 제목입니다.

이것을 제목스럽게 바꾸면? 바로 ①번으로 직관적으로 골라집니다.

제목문제인데도 오답률이 65%인 건 특이하네요.

긴 글 읽느라 수고들 많았어요. ㅎㅎ

우리 모두 끝까지 버텨서 승자가 됩시다!

빠이팅!